

● <안내>

“접지용 핵심기술 - 대지고유저항 분석 시스템” 무료 서비스 시행

한전에서 운용중인 대지고유저항 분석시스템(세계 최초의 자동 분석 시스템)을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서비스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공개기술명 : 대지고유저항 분석시스템
- 2. 공개목적 : 국민의 윤택한 생활영위(인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및 접지기술 선진화를 위하여
공익기관의 보유자원 사회 환원

- 3. 공개일시 : 2009년 7월 30일(목)
- 4. 접속주소 :
<http://www.e-kepco.co.kr/TRANS/INDUCTION/DA/main.php>
- 5. 이용대상 : 대한민국 국민
(전기, 통신, 지질분야 학계, 산업계 등)
- 6. 제공자료 : 접지 시공장소의 지표층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깊이까지의 토양특성
 - 토양의 지층구조(층수)
 - 각 지층별 대지고유저항 및 지층두께
 - 등가 대지고유저항 : 0.75m~100m
- 7. 기타 : 시스템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요청시
기술지원(예정)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 38년만에 확 바뀐다

8월부터 월별 사용량 및 요금 비교, 누진단계별 계산내역 제공

1971년부터 사용해 온 주택용 전기요금고지서가 8월부터 소비자들이 요금내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폭 변경되었다.

지식경제부는 7월 30일 지난 38년간 사용된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청구서를 8월부터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기요금 청구서는 당월, 전월, 전년동월의 전

기사용량을 수치로만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본인의 소비패턴, 요금체계, 사용량 정보 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특히, 누진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누진구간에 따른 전기소비절약 유인을 갖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4일 지경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고유가 대비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새로 바뀌는 고지서는 그래프와 도표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한눈에 자신의 전기소비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소비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본인의 소비패턴과 사용량 정보 등을 인식하기 쉽도록 월별 사용량과 요금 비교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하며, 누진단계별 요금계산 내역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사용량별 누진제 부담수준에 관한 메시지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관리비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한전이 관리비고지서를 수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는 서울 소재 2개 아파트단지를 선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전력사용량 정보를 전달받아 관리비고지서와 별도로 일반주택과 같은 전기 사용정보를 배포하고, 내년 1월부터는 관리비고지서에 일반주택과 같은 형태의 전기사용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KEA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실시간 전기요금제 시범사업 본격 착수

8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지역 200호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시범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전기요금이 고정된 현행 체계로는 경제적인 전력 소비 유도과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스마트그리드 추진과 실시간 전기요금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행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간 요금제는 고정요금제에 비해 전력요금 변동성(위험)은 높으나 소비자의 경제적인 사용시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요금제로 주로 미국에서 시행 중이다.

즉, 전력수요가 높을 때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전기사업자에게는 신규발전설비 투자수요를 줄일 수 있다.

시범사업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로 선정된 제주지역 200호 수용가를 대상으로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전과 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7월 31일부터 내년 말까지 18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전력공급 및 비용체계 등을 감안하여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실시간 요금구조를 설계하는 한편, 현장적용 및 소비자 반응 분석 등을 통해 실증단지에 적용할 실시간 요금제 시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참여 수용가에는 시간대별로 전력사용량을 기록할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와 함께 모니터, 제어기 등 각종 기술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가격신호에 반응하여 이뤄진 전기 절약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반응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실시간 요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향후 요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소비자 반응,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연구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A

産官學, 본격적인 “기후변화협상” 모드로

제3차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 개최

지식경제부는 8월 5일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관학포럼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그간의 기후변화 국제협상 경과 및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 이슈들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발표했다.

포스트 교토체제를 결정하게 될 12월 코펜하겐 협상을 불과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8월 협상부터 협상문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하반기 UN주도의 기후변화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의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 주도의 MEF 회의는 지난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7월 개최된 주요국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Smart Grid를 포함한 8개 기술이 주요 전환적 기술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의장국(Lead country)으로 선정된 바, 11월 15일자

지 동 분야에 대한 국제로드맵을 작성하여 정상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일본, EU 및 중국 등 주요국들의 최근 기후변화협상 동향 등을 설명하고 선·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여부 및 교토의정서 개정 등 주요 쟁점들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국제협상 전략을 협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추진상황 등을 상호 협의하고 산업계 등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번 포럼에서는 2007년 처음 도입된 社内배출권거래제 참가기업의 현황과 성과도 소개되었다.

특히, 국내 대표 기업인 LG화학과 SK에너지에 대한 배출 통계체계 구축, 거래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장간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 점을 강조하고, 이를 해외 사업장 및 계열사간 배출권거래제로 확대 실시하며,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우수 사례(Best Practice)로 보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첫 사례인 만큼, 이를 시금석으로 삼아 국내 기업들의 경험 축적 및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약 23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실시될 모의 배출권거래제에 기업들이 큰 관심을 표명했다. KEA